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필립보 사도

루가 제 7주일

미하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제 5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5조 부활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모든 천군천사들의 찬양송 / 290(날짜별 성가집)
- 성당 찬양송
- 성모입당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히브리 2:2~10 / 봉독서 610
-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B 7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필립보 사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 (요한 1:45)라고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감동에 벅차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필립보 사도는 우리 교회에서 11월 14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모두 덕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

각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어부였던 사도들을, 세리였던 복음사가에게 부족한 나머지를 채워주셔서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메시아에 대해 듣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마태오 25:29)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

오랜 병고로 그녀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저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치료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깊어졌으며,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고, 재산도 다 거덜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앓는 병은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무려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병이라는 고약한 고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병을 가지면 종교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한 마디로 저주받은 병이었죠.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은 마귀들린 사람도, 열병을 앓던 여인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가리지 않고 거뜬히 고쳐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체념했던 자신의 삶에 뭔가 모르게 소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주받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녀를 들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혈병자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들통이 나면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

월 동안 끝없이 흐르며 그녀를 괴롭히던 하혈이 멈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이 환희로 가득 찬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겉으로는 놀랄 수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돌아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루가 8:45) 기적의 힘이 뻗어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옷에 손을 댄 이유며 병이 낫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가 8:48)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부딪치고 했지만, 기적의 은총은 그 여인에게만 내려졌던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역사와 은총은 이렇게 참되고 순수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깊은 영적 육적 병을 갖고 있습니까? 삶의 부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2)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바울로 사도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노래인 시편의 성가들은 교회의 예배만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또는 나지막하게, 개인적으로 또는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전과 후에, 그리고 더욱이 잠시 쉬는 순간에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포티끼(그리스 북부)의 주교 디아도코스(5세기)에 따르면 교회에서 읽는 시편집 외에 우

리는 또한 헌신적인 기도와 함께 경험하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기쁨과 그런 기쁨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찬양의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찬양시편에는 마음의 즐거움과 영적인 눈물, 엄청난 희열이 따릅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측면에 대해서 대 아타나시오스(4세기)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헌신하는 신자는 아침에 성경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인은 하루를 지내는 동안 신자가 하느님 앞에 항상 서있는 자세로 살아야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데는 책이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책보다 더 위대한 교사는 기도 자체입니다. 수많은 금욕적 수도자들은 어떤 책도 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식서들과 교회의 예배모임 등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내적 작용을 통해 언제나 배울 수 있으며, 이때 참으로 기도하는 각 사람의 영혼은 하느님의 성전이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장소가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갈수 없듯이 신비의 성사,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찬 예배가 없이는 기도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바 아폴로(4세기, 이집트)가 말했듯이 “거룩한 신비의 성사와 친교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방에서 시작한 기도를 성당에 모였을 때 완료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식의 신비는 이어지는 기도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제단 위에서 계속 경험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대면 성직자 회의

코로나19로 올해 성직자 회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11월 2일(월)에 1월 성직자 회의 후 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온라인으로 모임을 해오다가 성직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형제로 우리 한국정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얼굴을 보면서 논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마음에 드는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밤 10시 기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자들이 함께 성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더욱 자유롭게 성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15분 동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에서 성가대 일원으로 선교활동을 돕고 있는 하리클리아 강순배 교우의 배우자 바울로 김노경(67) 교우께서 지난 10월 30일(금요일) 안식하였습니다. 그간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가족(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은 물론 모든 교우들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지난 11월 1일(주일) 교회 묘지 주님 부활 소성당에서 장례식이 다니엘 대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 바울로 김노경 교우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주간예식



11월 9일(월)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11월 13일(금)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